


제8회 대학생

만나다
KAPE의 발견 

축산물품질평가대회

The 8th Korean Collegiate Meat Judging Competition

2018. 5. 30.(수)~31.(목) | 축산물품질평가원, (주)팜스토리한냉

주최  축산물품질평가원 후원  (주)팜스토리한냉  한국축산식품학회



돼지 부문 대상 박병규·이소민 학생과 박중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장(제일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과장(우측 가운데)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참가 소감문

고객홍보처

KAPE누리 7월호에는 지난달에 이어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게재합니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돼지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건국대학교 박병규·이소민 학생입니다.

지난봄을 뜨겁게 보낸 학생들의 뿌듯함이 묻어나는 소감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우리 축산업의 내일을 이끄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며 우리 축산업의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대회가 끝났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 뿌듯한 성취감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에 약간의 허탈함도 같이 몰려왔습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13년도 1학기였습니다. 같이 기숙사 방을 쓰던 선배가 대회를 위해 틈틈이 소마블링 그림과 육색표가 있는 카드를 공부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뒤로 별려오다가 지난 3월 말 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이 온 후 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는 직접 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경야돈팀의 대회 대상을 있게 한 축평원 허운정 팀장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도축장과 판정을 하는 예냉실은 확실히 낯설었고, 추웠고, 시끄러웠지만, 허운정 팀장님과 서울지원 직원 분들께서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교육을 받으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필기공부 역시 틈틈이 진행했습니다. 주경야돈이라는 팀 이름처럼 주로 밤과 주말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필기의 범위는 처음에는 언제 다 공부할까 싶어 막막했지만, 여러 번 읽고, 단원별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조금씩 머리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날은 꽤 긴장했습니다. 시험에 앞서 장비들을 착용하고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몸을 풀고 심호흡을 계속 했습니다. 실기시험을 볼 때는 침착하게 성별과 등지방 두께를 확인한 후, 기타 체크 및 하락 사항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필기평가에서는 헛갈리는 문제가 몇 개 있어서 끝까지 남아 문제를 풀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회 결과 실시된 시상식에서 감격적인 대상,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팀원과 서로를 믿으면서 공부했고,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그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출전하였던 건국대학교 소팀과 함께 대상을 수상하여 기쁨이 배가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직접 돼지 도체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돼지도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장점은 직업체험의 기회였습니다. 실습교육을 받으면서 축산물품질평가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서울지원 직원 분들과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뿐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축산 학도로서 소, 돼지의 등급판정 방법부터 축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까지 필기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점은 같은 축산 계열의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입니다. 같이 서울지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삼육대 돼지 팀 ‘돈주세요’ 팀, 대회 당일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친해졌던 대구대학교 학생들 등 여러 학생들과 사소하지만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우시장에 가본 얘기, 학교 내에서 직접 농장실습을 한다는 얘기 등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현장에 가까워있는 다른 학생들의 모습에 놀랐고, 친구들의 마음가짐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대상을 받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믿고 대회에 출전시켜 주신 학과 주임 이경우 교수님과, 곳곳에서 응원에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여러 학교 선배님들,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어머니처럼 교육해주신 허운정 팀장님과 서울지원 직원 분들, 서로를 위하여 공부했던 팀원 소민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가 더욱 발전하여 축산업계의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주경야돈 건국대학교 **이소민**

안녕하세요. 돼지 부문에 출전한 주경야돈 팀 이소민입니다.

저는 포스터를 보고 처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알게 된 후 이 대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배님들의 출전 소식과 설명회를 통해서 대회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올해 대회 개최 소식에 박병규 학우와 함께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도축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품질평가를 직접 현장에서 해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축산 관련 학과가 모여 축산물의 품질평가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또 경쟁을 하는 일은 정말 드물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사표를 냈지만 설레는 한편 두렵기도 했습니다.

출전이 확정된 후 4월 30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스케줄과 전반적인 대회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품질평가를 하는 거지?', '소와 돼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 막연한 궁금증을 품은 채 첫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실습 과정에서는 서울지원 허운정 평가사님의 지도를 받아 암수 구분부터 등지방 두께, 삼겹살 상태와 결함 등을 체크하면서 돼지에 대한 품질평가 등급 매기는 실습했으며 전체적인 돼지를 보는 느낌을 길렀습니다. 되도록 다양한 도체들을 보고 안전하고 신속한 판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기 실습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이론으로만 공부하던 돼지도체를 현장에 적용해보며 품질평가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돼지와 소 도체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 번의 실기실습을 바탕으로 5월 30일과 31일 팜스토리한냉에서 대회를 진행할 때는 수없이 긴장했고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실습에 앞서 팜스토리한냉이라는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축산물의 미래에 대한 지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대회 진행 중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가금산물 이력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며 궁금증을 풀었고, 축산에 관심 있는 전국의 다양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대회 첫날 저녁에 진행되었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축산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현장경험과 축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기르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평가대회가 개최되어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관심과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